

#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

임재영 · 신동호 |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

임재영 · 신동호 박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파급효과를 생산효과, 부가가치효과, 고용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,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.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제한다.

## I. 지역경제 파급효과

### 1. 생산효과

정부소비지출 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42조 614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되며, 충청남도에서는 총 31조 9,803억원의 생산액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외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, 그리고 기타 지역 모두에서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로 인해 정(+의)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전국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3,188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인구이동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조 6,03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,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총 1조 2,182억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,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총 71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건설수요 변화로 인한 생산효과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3조 91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생산효과는 총 26조 5,146억원이며, 기타 지역은 총 20조 2,661억원, 그리고 충청남도는 11조 8,329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. 여기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효과 중 상당부분이

수도권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충청남도 외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(재화와 서비스)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로 분석되었다.

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생산효과는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1조 6,187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중 충청남도의 생산증가효과는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이며, 대전·충북 지역은 총 7조 3,174억원으로 분석되었다.

## 2. 부가가치효과

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로는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6조 2,574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충청남도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총 21조 687억원이 증가하며, 대전·충북 지역은 1조 4,091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에 따라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2조 4,788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리고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8,377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과 대전·충북의 부가가치는 각각 총 6,742억원과 728억원이 증가하여, 충청권 전체적으로 7,47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를 통해 발생하는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생산효과와 동일하게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 역시 전국적으로 정(+)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1조 4,829억원, 기타 지역에서는 7조 9,012억원,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6조 9,79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총 5조 2,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를 종합하면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6조 3,632억원의 부가가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이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같은 기간 총 27조 69억원이며, 대전·충북 지역은 총 3조 1,970원으로, 충청권 전체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총 30조 2,039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같은 기간 수도권 지

역의 부가가치는 총 15조 6,12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### 3. 고용효과

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6,280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3,934백명이 증가하며, 대전·충북 지역은 261백명이 증가하여,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4,194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 외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총 1,117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, 전국적으로 정부지출 수요변화에 의해 총 969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14백명의 고용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·충북의 고용은 각각 총 221백명과 13백명이 증가하여,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34백명의 고용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그리고 기타 지역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42백명이 증가하여, 전국적으로 총 62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전국적으로 정(+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,759백명, 기타 지역에서는 1,291백명,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2,229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,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1,969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,372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 중 충청남도의 고용효과는 같은 기간 총 6,123백명이며, 대전·충북 지역은 총 533백명으로, 충청권 전체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6,657백명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수도권 지역은 이 기간 총 3,735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 II. 결론

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을 총 61조 6,187억원, 부가가치를 26조 3,632억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고용은 같은 기간 총 5,372백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역별로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,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정(+의 효

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되는 충청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의 생산증가와 27조 69억원의 부가가치 증가, 그리고 6,123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, 부가가치, 그리고 고용 모두에서 부(-)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주로 건설효과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기인한 것이다. 즉,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 제공기

능이 충청남도로 이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.

그러나 건설사업을 위해 투여되는 개발사업비는 모든 지역에서 공히 정(+)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결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정(+)의 효과를 발생시키며, 특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큰 경제성장 효과를 발생시킨다.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핵심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표 1.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(2000년 불변가격)

구분		생산효과(억원)	부가가치효과(억원)	고용효과(백명)	
공공기관 이전효과 (A)	수도권	-436,650	-270,951	-6,494	
	충청권	충청남도	331,985	217,429	4,154
		대전·충북	29,219	14,819	273
		(소계)	361,203	232,248	4,428
	기타	61,543	38,703	1,159	
	전국 계	-13,904	-	-907	
건설효과 (B)	수도권	265,146	114,829	2,759	
	충청권	충청남도	118,329	52,640	1,969
		대전·충북	43,955	17,151	260
		(소계)	162,284	69,791	2,229
	기타	202,661	79,012	1,291	
	전국 계	630,091	233,632	3,279	
효과종합 (A+B)	수도권	-171,504	-156,122	-3,735	
	충청권	충청남도	450,314	270,069	6,123
		대전·충북	73,174	31,970	533
		(소계)	523,488	302,039	6,657
	기타	264,203	117,716	2,450	
	전국 계	316,187	233,632	5,372	